

새로운 안전관리 패러다임 (Paradigm)에 대한 단상(斷想)

Article

02

- 공벽면의 초기 수직응력 증가에 의한 인발력 향상 -
Study on Capacity Enhancement of Soil Nail Using Expansive Grout

박 구 병

한국시설안전공단 실장 / 공학박사
건설안전기술사 / 재난관리지도사

사업장 합동안전점검 지적내용 매년 반복

우리는 매년 사업장 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자 발생 소식과 불가항력적 문제이긴하나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소식을 뉴스를 통해 자주 그리고 반복적으로 듣게 된다.

소방방재청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99~'08)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각각 836명과 18조1,834억원 이라고 한다.

이러한 피해는 주로 태풍과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는 7~9월에 집중되었으며 산업재해 역시 같은 기간인 7~9월에 발생률이 더 높았다고 한다.

이렇게 매년 대형 안전사고나 자연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재발방지를 하겠다고 어김없이 제도를 개선·발표를 한다. 안전관리의 책임이 있는 기관 또한 특별점검이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을 방지하거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사업장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사법처리를 하였다고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한다. 좋은 방법인 것 같지만 어쩔 수 없는 교육지책(苦肉之策)이란 생각

이 든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정명령과 사법처리를 받게 된 주요 지적사항들을 살펴보면 매년 동일한 유형의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현재의 안전관리 정책의 실효성 여부를 따져보거나, 사업장의 안전관리 현실을 재조명해 보아야 한다.

금년도 건설공사장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결과 발표 자료에 따르면 '안전난간·안전망·작업발판' 등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건설업체 10개소를 형사입건하였으며, 안전시설 미비로 산업재해 위험이 큰 공사장 15개소에 대해 작업 중지, 방호조치가 소홀한 위험기계 37대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총 2,560건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이러한 지적과 조치사항은 매년 있어왔으며 아마 내년에도 유사한 뉴스를 들어야 할 것 같다. 왜 이러한 지적과 안전사고,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 의문을 갖게 되는 동시에 안타깝다는 마음이 든다.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안전문화의 정착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안전관리의무 사항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이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거나, 법에 있거나 하지못해 형식적으로 시늉만 내고 있는 수준이다. 이러한 소극적이고 타의적 안전관리 환경 속에서, 정부의 관리·감독만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재해감소를 따라가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업장에서 자율적인 사고예방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안전문화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이러한 풍토를 조성 및 유도하는 것이 재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안전관리의 기본정신은 배려

가장 이상적인 것이 바로 사업주 스스로 선진화되고 내실있는 안전관리에 나서 주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분명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사업주의 마음과 자세를 변화시키는 데는 제도의 정비 및 개선도 필요하겠으나 안전관리는 사업주를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의 짧은 글을 통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자세와 목적을 마음에 담기를 희망한다. (이 글은 어느 책에 기록된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인용에 대한 저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였음을 밝히면서 원 저자에게 감사한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밤에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한손에는 등불을 들고 길을 걸었다.
그와 마주친 사람이 물었다.

“정말 어리석군요. 앞을 보지도 못하면서 등불은 왜 들고 다닙니까?”

그가 말했다.

“당신이 나와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요.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평범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실천하기 힘든 이야기이다.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등불을 들어야 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천에 옮길 수 있었다고 본다. 짧은 글이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깊이와 폭은 어떠한 안전관리제도나 법률보다 크다고 생각한다.

위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안전은 배려이다” 또는 “배려는 안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사업주의 안전관리는 근로자를 배려하는 것이다. 사업주가 배려한 근로자는 그러한 배려 안에서 건설 및 제품생산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기에 배려는 결국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배려를 베풀 사람이 대상자에게 꼭 맞는 맞춤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과장되거나 형식적·소극적인 것이 된다면 걸치레로 끝날 수밖에 없다. 사업주는 사업장의 환경과 근로자 그리고 안전시설과 방호장치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 또한 제일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사업주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근로자를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 또한 사업주가 이러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는 안전관리자를 위한 것

다음은 성서에 나오는 짧은글을 통하여 배려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소개하고자 한다. 어느 특정 종교의 경전을 떠나 안전관리의 책임이 있는 리더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인용을 한다.

“네가 새 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성경, 신명기 22장 8절)

(When you build a new house, make a parapet around your roof so that you may not bring the guilt of bloodshed on your house if someone falls from the roof.)

이 글은 지금부터 약 3,400여년 전에 기록된 것이다.

그 당시에도 안전시설 설치를 중요하게 여겼으며 그 역할이 사업주에게 있다는 것과, 그렇게 하지 못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책임 역시 사업주에게 있다는 경고의 이야기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다.

그렇다. 안전관리는 사업장에 존재하나 쉽게 발견되지 않는 위험요소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인데 이는 결국 사업주를 보호하는 것이 된다.

이제는 안전관리자나 사업주의 안전관리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마지못해 실시한다는 자세와 근로자만을 위한 안전관리라는 일차적이고 수동적인 생각에 일대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안전관리 실패사례 정보 공유 필요

다음으로 안전관리 실패사례 공유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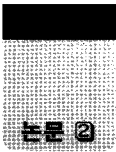
나는 한 회사 내에서 동일한 유형의 공사가 복수의 현장에서 수행되고 있을 경우 품질 및 안전관리 중점 추진 사항 등이 서로 공유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한 예로서 한 대형건설사의 서울소재 공사장에서 기존 건축물의 기초를 지반에 설치한 임시시설로 지지한 후에 지하층을 확장하는 공사가 2개 현장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었다. 그러나 한 현장에서는 다른 현장의 개선된 채택 공법에 대한 사전검토 없이 종전에 경험하였던 재래식 공법을 고수함으로써 위험요인을 높인 사례가 있었다. 이는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산업재해의 씨앗을 심는 행위와 같은 것이었다.

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건설현장에서 엔지니어의 고집과 경험 중시에서 빨리 탈피하고,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정보공유에 따른 정보유출의 두려움에서도 빨리 벗어나야 한다. 현대의 인터넷 세상에서 영원한 비밀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안전관리 실패사례를 공개하고 그 문제점과 대책을 공유하여 산업재해를 사전에 대비하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실패사례 제출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직하다. 매년 반복되는 사고 또는 실패에 대하여 가장 조사위원회를 통해 자료를 취합하고 이를 공개·보급함으



로써 재난예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속담에 '병은 자랑하라'는 말이 있다. 비유가 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위험요인과 실패사례를 공개해야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으며 나아가 모든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예방약이 될 수 있다.

안전사고와 재해 발생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7~9월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 모두가 하던 일을 멈추고 안전사고와 재해를 예방하고 충분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기본으로 돌아가 생각하고 실천하는 새로운 안전관리 패러다임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본다.